

대책위원회가 ‘날치기’라고 비난한 오광수 총감독의 전시기획안 전문을 여기 소개하므로써 ‘날치기’라는 표현이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또하나의 명예 훼손이 될것인지 미술인들이 판단해 볼 기회를 드리며 이 글을 맺는다.

### 第3回 光州비엔날레 展示計劃(案)

#### □ 目 標

1. 5.18 정신의 계승과 광주를 예술거점 도시로 향상 발전
2. 한국미술의 정체성 구축과 세계적 비엔날레로서의 위상확립
3. 21세기 미래 지향적 문화인프라 구축

#### □ 基本方向

1. 서구중심의 문화축을 탈피한 지역균형 배려
2. 예술의 본질 회복 및 대중적 공감대 확산
3. 새 밀레니엄 문화비전 제시

#### □ 主題

“人 + 間”

#### □ 展示區分

- 본전시 : 주제에 따라 적정 수의 커미셔너 및 작가 선정
- 특별전

##### 1) 北韓美術의 어제와 오늘

- 北韓美術의 역사를 조명해 보는 내용
- 가능한 한 이데올로기성 배제

##### 2) 아시아 現代美術의 정체

- 한국 70년대 단색파, 일본 70년대 모노파(物派), 중국 80년대 팝아트
- 한.중.일 3국의 현대미술에 반영된 독자적 조형이념 조명

##### 3) 예술과 人權

- 세계인권의 해에 걸맞는 국제 규모의 인권을 소재로 한 전시
- 인권에 대한 예술적 표현

##### 4) International Erotic Art

- 세계 에로틱 아트의 정수를 모아 성을 문화로서 정리해 보이는 전시
- 성을 삶의 뿌리로 보아 국제적 이질성과 동질성을 비교하여 본질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전시

##### 5) 인간의 숲, 회화의 숲

-30×30(cm)크기의 그림으로 전시장 벽을 뒤덮어 내부를 그림의 숲, 인간의 숲으로 만듦.

- 지역, 경향을 초월하여 한국인 미술인이면 누구나 참여케 함.

- 참여의식을 고취시켜 타지역에서 광주로 향하게 하는 이미지 전달.

##### 6)여명의 빛

- 한국 현대미술의 현재와 미래를 압축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전람회

\* 제3회 광주비엔날레 개최기간은 2000. 3. 29(수)~6. 6.(화)까지 70일간 개최의견 <끝> 다음과 같다.

1. 시립미술관과 재단을 분리하자는 다수 의견과 현행대로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2. 이사장은 민간인으로 하자(고재유 시장 의견 제시)는 다수의견과 현행대로 시장이, 또는 민간 인과 시장이 공동 이사장제로 하자는 소수의견이 있었다.
3. 연임 계약되지 않은 재단 직원은 재심사하여 재계약 해 주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4. 최민 총감독 해촉에 대하여 적절한 명예회복을 강구할 것을 권장하는 의견이 있었다.
5. 결원 이사는 전국적으로 신망받는 인사로 충원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6. 재단사무처의 사무총장을 행정부시장이, 사무차장을 미술관장이 겸임함은 적절치 않다는 다수 의견과 현행대로 하자는 소수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써놓고나서 나는 문득 자문하여 본다. 광주비엔날레는 과연 표류를 계속하고있는가? 그것은 네 입장에서 얘기고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제대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이 아니겠는가? 말하자면 광주비엔날레 사무처 입장에서 보게되면 말이다. 사무처 관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최민 전 총감독 체제야말로 광주비엔날레를 표류시키는 주인공이었기에 해촉을하고 새로운 체제를 출범 시키면서 정상적인 궤도를 잡아가는 중일것이다.이러한 일이 일어나게된 직접적인 계기가 바로 오 총감독의 발빠른 총감독직 수락과 그에따른 전시기획위원의 임명에서 비롯되었음은 부인할수 없는 사실이다. 우리는 2월 1일 오총감독을 만나 이와같은 유감의 뜻을 전하고 비평계, 아니 화단의 어른으로서의 큰 행보를 아쉬워하며 곤경에 빠진 3회 광주비엔날레와 미술계의, 이와같은 바람직하지않은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서는 오총감독이 스스로 퇴진을를 하는 것만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제안을 했다.